

저소득층 아동의 주거환경

곽은순·정미라
경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Home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of Children:

Based on Socio-economic Status and Settlement Character

Kwak, Eun Soon · Chung, Mi Ra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wo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gional differences of 0-12 aged children's environment based on their parents' socioeconomic class and on the character of the settlement. One thousand and two hundred households were investigat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is revealed that families in low socio-economic class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noise and home crowdedness. Families living in spontaneous settlement are deprived of natural light and the roads to their homes are steep and narrow. Low income families face a housing affordability crisis. Most of them pay housing rent on monthly basis. The basic infrastructure of low income neighborhood is lacking convenient facilities like shopping centers,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banks, public parks, and libraries. This lack of facilities is more severe in spontaneous settlement. Instead, bars and taverns are located in their neighborhood. Accessibility to parks and resource center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makes both middle and low income families consider their neighborhood to be positive and this condition is counted better in social housing area than in spontaneous settlement. On the contrary, social networks like friends and relatives are strong in spontaneous settlement and families in poverty value these relationships. Such networks are weak in social housing area and this difference is not related to their residential period. Low income families living in social housing area are more pessimistic about their future and this view might result from their counterpart middle class neighbors and the weak social networks.

Key words: residential environment, low income families, social housing area, spontaneous settlement

I. 서론

인간사회에서 빈곤은 가장 오래되고 고질적인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빈곤은 개인적인 면에서 생존과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회적 면에서 사회불안을 야기하거나 사회통합

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와 함께 노인빈곤층과 아동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류현규·최현수 2003). 아동빈곤층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빈곤문

접수일: 2007년 7월 25일 채택일: 2007년 9월 16일

Corresponding Author: Kwak, Eun Soon Tel: 82-31-750-5604 Fax: 82-31-750-8719

e-mail: esk@kyungwon.ac.kr

제를 겪고 있다는 면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아의 측면에서 본다면 부모의 빈곤으로 인해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이미 출발선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또는 학교 학습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잠재가능성을 신장시키지 못하게 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 교육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취약계층 영유아부터 시작하여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교육 투자시기에 따른 효과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시한 연구(Cunha et al. 2005)나 미국의 헤드스타트 연구, 아동낙제방지법(NCLB), 페리프리스쿨 프로젝트등에 대한 장기 종단적 연구결과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시기 중 영유아기의 공적투자 수익율이 가장 높음을 밝히고 있다(김지은 2005, Schweinhart 2004).

이와 같이 빈곤이 야기하는 여러 해악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빈곤 아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이들의 정서문제나 학업성취와 같이 아동 개인에 국한되어 있어 빈곤아동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 빈곤아동의 문제를 조명하면서 아동 개인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집중한 연구는 빈곤아동을 둘러싼 제반 특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순형 등 1991; Brooks-Gunn et al. 1995; Evans 2004). 빈곤은 부모의 경제적인 고갈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들의 교육수준이나 양육태도, 부부갈등, 건강상태 등을 통하여 성장기 자녀에게 영향 미치며 나아가 빈곤가정 자녀의 친구관계, 이웃, 제한된 사회접촉 등 제반요인이 복합적으로 서로 얽히면서 부정적인 효과가 가중된다. 빈곤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은 Bronfenbrenner의 생태학 모델(ecological model)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Bronfenbrenner 1979) 이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나 지역환경에 관심이 돌러지고 있으나, 아직도 빈곤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Eamon, 2001). 최근들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빈곤아동의 주거환경을 기술한 연구는 빈곤아동의 환경 지각 연구(이순형 등 1991)와 교육투자우선지구의 주거환경 연구(홍인옥 2006)로서, 이를 제외하면 아동의 학업성취나 비행문제 연구에 있어 주거환경이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빈곤층의 주거형태는 1980년대에 '임대주택 육성방안',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일대변환기를 맞게 되는데 1960년대 도시빈곤층이 형성되던 초창기의 주거형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허가 주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 도시 정비와 함께 집단강제 이주가 이루어지고 1980년대 말부터 빈곤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정책과 함께 임대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자생적 정착촌이 사라지고 있다(김태경·윤지영 2006; 홍인옥 2006).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바뀔 때 따라 이들의 주거문제도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불량주택이라고도 하는 자생적 정착성격이 강한 빈곤층 거주지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주택의 단열, 방음 상태였으며 지역문제로서는 복잡한 도로망, 놀이터와 같은 공공시설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이병대·동재욱 2005; 이정희 등 1990; 허진욱 등 1997). 그러나 이들의 이웃관계나 가족관계는 원만한 것으로 나타나 좁은 공간을 이웃이 협력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는 등 주거공간 활용을 비롯하여 이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승현·조용수 1993; 하성규 1990; 허진욱 등 1997). 이에 반해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정부주도 하의 임대아파트 보급 정책은 거주자들의 생업지나 도시기반시설, 편의시설을 고려하지않고 이루어져 도심주변환경의 훼손을 비롯하여 저소득층의 교통비를 비롯한 생계비를 높이고, 주변과의 소득격차에 따른 소득계층 분리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태경·윤지영 2006). 이처럼 빈곤아동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인 주거환경이 바뀌고 있다면 이에 따른 지역 거주민의 아동양육의 환경 변화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에서부터 학령기 아동을 둔 가정의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을 계층별과 지역별로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계층별이라 함은 부모의 소득이 국민평균 소득 100% 이상인 일반가정과 정부의 보조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을 빈곤 가정으로 대별한 것을 말하며, 지역별은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한 구도시 빈곤계층 밀집지역과 영구임대아파트 거주가 주를 이루는 신도시 지역으로 구분한 것을 일컫는다.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로 그 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주거환경과 같은 외부환경보다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성과 같은 아동의 내면적인 특성의 영향력이 더 커지므로 외부환경에 민감한 연령대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함이다(김광혁 2006; 정익중 2004).

본 연구를 수행하기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주거환경은 부모의 소득 정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은 부모의 소득 정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빈곤아동과 주거환경

주거환경이란 주거 단위를 말하며 개인(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근린환경을 비롯한 지역환경을 일컫는다(이병대·동재욱 2005). 주택은 가족의 안식처이고 특히 아동에게는 이들 성장의 발판이 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아동의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서 보듯이 주거환경은 아동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이들의 교육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구인회 등 2006). 주거환경에서 계층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 중의 하나가 주택소유 여부다. 우리나라 빈곤층 다수의 주거형태가 월세이고 자가인 경우에도 비닐하우스나 판자집 등 무허가 불량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하성규 1990; 홍인옥 2006).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부모는 그들의 경제수준에 따라 아동교육에 투자

하는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의식주에 해당하는 기본생활비의 압박으로 인하여 교육투자 수준을 낮추게 되고 그 결과 아동의 인지발달이나 학교성과와 같은 학력성취 수준이 저하된다(Becker & Tomes, 1986, 구인회 등에서 재인용, 2006). 월세와 같은 경우 주택을 확보하는데 드는 부담이 아동양육에 영향을 미쳐 그 결과 빈곤 가정의 아동들은 책과 같은 교육자료가 부족하게 되고, 아울러 잦은 이사나 불량한 이웃이 이들의 발달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불안한 주거는 빈곤층 부모 뿐 아니라 아동들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그 외에도 생활공간의 협소함이나 위생, 편의시설, 주변환경의 부적절성은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빈곤가정의 주거형태는 임대아파트나 단독, 다세대가구나 점포주택이 많은데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가구나 단독일 경우, (반)지하 거주가 높게 나타나 채광, 소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자녀의 건강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김태경·윤지영 2006; 홍인옥 2006). 주거의 내부환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과밀문제이다. 빈곤가구의 거주 방수는 2000년 전국 가구당 평균 방수인 3.4개에 밀도는 2.3개로서 5인 이상 가족이 2개의 방을 쓰거나 심지어 단칸방에 모든 식구가 거주하는 등 가족구성원의 주거 밀집도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홍인옥 2006). 그 결과 아동이 혼자 공부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며 형제자매나 조부모와 함께 방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들어 빈곤가정의 주거형태가 자연발생적인 무허가판자촌에서 임대아파트로 바뀌고 있지만 임대아파트와 같은 최소한의 공간보급이 이들의 고질적인 공간문제를 해소하지 못함을 지적받고 있다. 공간문제 외에도 소음, 악취, 습기와 같은 위생문제도 빈곤계층의 주거불만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인옥 2006). 환경정의 시민연대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35만 가구 중 10%에 버금가는 3만3천여 가구가 반지하 가구이며 이런 가구 대부분이 환기가 되지 않고 채광, 악취, 소음 등 유해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무허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흔하게 나타

났다(2006년 12월 22일 KBS 11시 뉴스).

주거내부 환경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변환경에서도 빈곤층 거주지역에는 상가나 서비스시설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반면 주점과 같은 유흥시설이 타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vans 2004). 생활편의시설의 부족은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지역에 심하며 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이 정비되지 못한 채 아파트만 들어서서 이들의 삶이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주변의 일반 계층과 화합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김태경·윤지영 2006). 이외에도 공공시설의 부족 역시 계속 언급되고 있다.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의 격차 외에도 놀이터와 같은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비율이 빈곤층 아동에게 떨어지며, 빈곤지역에서 도서관과 같은 문화공간이 부족하다(이병대·동재욱 2005; 이정희 등 1990; 허진욱 등 1997). 공공시설의 부족현상

은 특히 도시계획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빈곤층 거주지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빈곤층의 주거 형태에 따른 지역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빈곤층의 지역환경이 취약하여 아동의 신체발달은 물론, 인지, 사회정서를 비롯한 발달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순형 등 1991; 홍인옥 2006; Evans 2004).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및 도구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0-12세 자녀를 둔 부모 1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계층과 빈곤층을 각각 600가구 씩 선정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ing

		Socio-economic status(SES)		Settlement character of low-income group	
		middle-income	low-income	social housing	spontaneous settlement
Responsible for child rearing	mother	373(69.5%)	337(60.1%)	83(53.2%)	236(63.3%)
	father	139(25.9%)	157(28.0%)	56(35.9%)	96(25.7%)
	grandparent(s)	13(2.4%)	48(8.6%)	13(8.3%)	31(8.3%)
	siblings, relatives	12(2.2%)	19(3.4%)	4(2.6%)	10(2.7%)
	N	537(100.0%)	561(100.0%)	156(100.0%)	373(100.0%)
Parents' marriage status	married	519(96.6%)	326(59.3%)	88(57.1%)	221(60.4%)
	divorced(separated)	10(1.9%)	151(27.5%)	41(26.6%)	100(27.3%)
	lost spouse	0(0%)	24(4.4%)	13(8.4%)	10(2.7%)
	etc.	8(1.5%)	49(8.9%)	12(7.8%)	35(9.6%)
	N	537(100.0%)	550(100.0%)	154(100.0%)	366(100.0%)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3(.7%)	62(22.3%)	24(30.0%)	37(19.4%)
	high school	55(13.3%)	155(55.8%)	41(51.3%)	109(57.1%)
	community college	45(10.8%)	19(6.8%)	5(6.3%)	14(7.3%)
	undergraduate+	312(75.2%)	42(15.1%)	10(12.5%)	31(16.2%)
	N	415(100.0%)	278(100.0%)	80(100.0%)	191(100.0%)
Emploment status (father)	regular	401(97.1%)	85(30.7%)	17(21.0%)	66(35.1%)
	part time(6mon.+)	9(2.2%)	81(29.2%)	27(33.3%)	52(27.7%)
	part time(6mon.-)	1(.2%)	42(15.2%)	9(11.1%)	32(17.0%)
	between jobs	2(.5%)	69(24.9%)	28(34.6%)	38(20.2%)
	N	413(100.0%)	277(100.0%)	81(100.0%)	188(100.0%)
Number of children	1	87(21.2%)	86(18.5%)	26(18.4%)	58(19.3%)
	2	282(68.6%)	255(55.0%)	81(57.4%)	163(54.3%)
	3	39(9.5%)	102(22.0%)	27(19.1%)	70(23.3%)
	4+	3(.7%)	21(4.5%)	7(5.0%)	9(3.0%)
	N	411(100.0%)	464(100.0%)	141(100.0%)	300(100.0%)

하였다. 빈곤층 아동의 표집은 성남시 저소득 아동 현황(2006년 통계 자료)을 참고 하여 각 구 별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를 선정하였다. 비교집단 역시 성남시의 구 별로 국민평균소득 100% 이상인 일반가정을 선정하였다. 조사 당시 성남시는 구시가지로 이루어진 2구와 신도시 1구로 형성되어 있었고 성남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각 구별로 일반가정과 빈곤가정을 200가구씩 표집 하였다. 그 결과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심인 신도시 거주 빈곤가정 200가구와 자생적 정착촌 형태를 보이는 구도시 거주 빈곤가정 400가구가 표집되었다.

조사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주 양육자에 있어 저소득층은 일반계층에 비해 조부모와 친인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에 결혼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혼인상태에서도 확인되는데 이혼 및 별거, 사별, 이외의 다른 이유인 기타까지 42% 정도가 결혼가정으로 판명되어 전통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비율이 일반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도 일반가정에 비해 고졸이나 중졸이하가 월등히 많았으며, 고용상태 역시 임시직이나 한시직이 44%를 넘고 아울러 25%가량이 무직으로 나와 거의 69%가 넘는 가정이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수가 1명이나 2명인 가정은 일반계층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높은 반면 3명, 4명 이상인 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해 저소득 가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을 빈곤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별로 보면 비록 큰 차이는 아니나 신도시 거주가정이 구도시보다 부모의 기혼율이 낮고 아버지가 무직인 비율이 높았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설문지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제작되었다(구인회 2003; 이기숙 등 2006; 이봉주 등 2004). 설문내용은 기본정보, 주거환경, 지역 환경과 이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기본정보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7문항에 걸쳐 선다형식으로 문의하였다. 주거환경과 지역환경에 관한 질문은 각각

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주거환경에서는 주택형태 및 주택소유 상황, 거주기간, 가구 당 방 수, 주택 층수와 주거 문제를, 지역환경에서는 주변의 생활편의 및 문화시설, 행정수단과 교통수단, 자녀양육환경과 문제점을 선다형 질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도구로 사용될 질문지의 내용 타당도를 위해 영유아 교육 및 생활환경 분야의 전문가 검증을 거쳤으며 이 질문지를 이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각 구마다 빈곤계층이 밀집하여 사는 1개 동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 중 아동기 자녀가 있는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2006년 4월17일부터 4월 22일 까지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각 문항의 의미전달의 정확성과 질문지 응답에 걸리는 시간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질문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2. 조사 및 자료 분석

설문 조사는 2006년 6월 20일부터 8월 10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빈곤가정의 경우는 조사자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반가정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으로 설문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교육 및 보육기관을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방문한 기관은 민간 어린이집 3곳, 병설 유치원1곳과 사립유치원2곳, 그리고 초등학교 3곳을 방문하였으며 지역의 대표성을 위해 신도시 1구와 구도시 2구에서 각각 1곳 씩 선정하였다. 설문지 조사자는 설문대상지역이 낯설지 않게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2인 1조로서 총 5팀이 각 지역의 동회의 도움을 받아 빈곤 가정을 방문, 조사하였다. 조사자는 본 연구를 위해 3회에 걸친 사전교육을 받은 후에 현장조사에 임하였다. 아울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매주 연구자와의 모임을 통해 조사 과정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논의하고 보완하였다. 설문지 수거는 빈곤층의 경우 가정 방문을 통해 600부가 수거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부실한 34부를 제외하고 총 56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일반 대상 가정의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질문지 손실의 경우를 대비하여 700부를 배부하여 572부가 수거되

있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한 32부를 제외하고 54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 분석을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각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두 계층 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별로 빈도를 낼 때 무응답은 전체 사례 수에서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문항의 성격에 따라 응답 수가 달라져 총 사례수의 차이가 나고 있다.

IV. 연구 결과

1. 주거환경

본 연구 참여자 중 일반가정의 77.4%가 아파트 거주자인 반면 빈곤 가정은 다세대 연립주택(30.6%)과 단독주택(35%),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25.2%)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신도시 거주 빈곤가정의 85.4%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인 반면 구도시는 단독주택(49.7%)과 다세대 연립주택 거주자(43.5%)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주변 주거형태를 계층별로 비교한 결과 빈곤 가정 주변에 상가 및 유흥시설이 혼재해있는 경우가 일반(5%)보다 5배 이상 높은 28%에 육박하고 있었다. 이를 빈곤 가정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보면 신도시 거주 빈곤가정(6.1%)보다 구도시(39.7%)에 이러한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높았다.

본 연구 참여자의 주택소유상황을 보면(Table 2), 약62%에 달하는 일반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빈곤층은 6% 정도만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다수가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월세의 비율이 전세보다 높아 생활비에서 주거비의 소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분율은 낮지만 친척집과 같이 무상으로 있는 빈곤층도 일반의 배를 훨씬 넘고 있으며 기타에 해당하는 비율도 높아 주거에서부터 빈곤층은 불안한 형태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상황을 신, 구도시별로 비교해보면(Table 2), 월세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전세의 비율이 구도시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신도시 빈곤층에서는 기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를 함께 내는 것을 전세나 월세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빈곤층에서 월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생활비에서 매달 부담해야하는 주거비용이 높아 경제적 압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계층별로 거주지의 거주기간을 조사한 결과 일반은 평균 7년8개월(Mean-month 92.81; SD 97.99)이고 빈곤층은 6년 10개월(Mean-month 82.82; SD: 84.42) 정도로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빈곤층의 지역별로 분석을 해 보아도 평균 7여년으로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잦은 이사처럼 주거가 불안정한 형태도 아니지만 동시에 그 지역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드물게 나타났다.

Table 2. Type of housing affordability by socio-economic status and by settlement character of low-income families

	SES		Settlement character of low-income group	
	middle-income (N=537)	low-income (N=516)	social housing (N=142)	spontaneous settlement (N=374)
Own the house	332(61.8%)	32(6.2%)	11(7.7%)	21(5.6%)
Long-term rent	187(34.8%)	167(32.4%)	11(7.7%)	156(41.8%)
Monthly rent		233(45.2%)	66(46.5%)	167(44.7%)
Free (relative's or official's)	10(1.9%)	25(4.8%)	1(0.7%)	24(6.4%)
Etc.	8(1.5%)	59(11.4%)	53(37.3%)	6(1.6%)
$\chi^2=164.60, ***p<.001$				

Table 3. Number of child per room by SES and by settlement character

	SES		Settlement character of low-income group	
	middle-income (N=483)	low-income (N=352)	social housing (N=112)	spontaneous settlement (N=240)
One child/room	262(54.2%)	69(19.6%)	25(22.3%)	44(18.3%)
Share the room with siblings	221(45.8%)	283(80.4%)	87(77.7%)	196(81.7%)
	$\chi^2 = 64.78, ***p < .001$		$\chi^2 = 0.77, n.s.$	

주택의 방 개수에 있어 빈곤층이나 일반 모두 평균 방 개수가 3개로서 우리나라 전체평균인 2.3개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빈곤계층의 총 가족 수가 일반계층보다 많은 것을 고려하면 방의 크기나 유용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빈곤계층의 주거공간이 협소할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형제가 함께 방을 쓰는 경우가 일반계층보다 빈곤층에서 많았고(Table 3), 신도시 거주 빈곤층에 비해 구도시에서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지 않았다.

빈곤층의 주거문제를 살펴보면 모두 협소한 공간과 소음문제를 각각 1, 2위로 꼽았다(Table 4). 특히 절반 이상의 신도시 가구가 협소한 공간 문제를 지적한 반면, 구도시에 소재한 빈곤 가구는 신도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채광, 급경사, 좁은 골목 등을 문제로 지적하여 자생적 정착 성격이 강한 구도시와 계획적으로 건설된 신도시

간에 차이가 났다. 신,구도시의 차이는 주택층수에서도 나타나 구도시에에 거주하는 가구 중 반 지하나 지하에 살고 있는 가구가 38%로서 지하 가구가 한 가구도 없는 신도시 거주자와 대조되었다.

2. 지역 환경

지역 환경을 생활편의시설, 문화시설, 행정, 그리고 교통수단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빈곤층과 일반계층간에 확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생활편의시설에서는 은행이 일반계층 지역과 빈곤층간에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문화시설에서는 문화센터와 공원 유무가 큰 차이를 보였다. 빈곤층의 행정시설 역시 전반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아동의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학교시설에서도 계층 간에 차이 났다. 교통수단에서는 좌석버스 유무와 전철이 큰 차이를 보

Table 4. Home environment of low-income families by settlement character

	Social housing (N=137)	Spontaneous settlement (N=333)	χ^2	
Home environment	noise	28(20.4%)	82(24.7%)	
	insufficient space	79(57.7%)	64(19.2%)	
	poor hygiene	1(0.7%)	8(2.4%)	
	poor indoor air quality	5(3.6%)	25(7.5%)	
	insufficient lighting	0(0%)	55(16.5%)	140.87***
	steep roads	0(0%)	41(12.3%)	
	narrow roads	0(0%)	34(10.2%)	
	confront main streets	7(5.1%)	13(4.0%)	
	etc.	17(12.4%)	11(3.3%)	
House stairs	basement	0(0%)	136(37.8%)	
	on the ground	130(100.0%)	224(62.2%)	89.42***

*** : $p < .001$

Table 5. Neighborhood environment by SES and by settlement character(multiple answering)

	SES			Settlement character of low-income group			
	middle-income (N=540)	low-income (N=533)	χ^2	social housing (N=157)	spontaneous settlement (N=376)	χ^2	
Convenient facility	whole-sale market	100(18.5%)	97(18.2%)	.00	39(24.8%)	58(15.4%)	6.60*
	dept. store/ market	203(37.6%)	93(17.4%)	51.94***	13(8.3%)	80(21.3%)	12.99***
	bank	406(75.2%)	270(50.7%)	82.63***	96(61.1%)	174(46.3%)	9.80**
	hospital	400(74.1%)	283(53.1%)	65.04***	110(70.1%)	173(46.0%)	25.73***
	religious facility	336(62.2%)	208(39.0%)	66.84***	57(36.3%)	151(40.2%)	.69
Amenities	park	388(71.9%)	220(41.3%)	110.41***	113(72.0%)	107(28.5%)	86.53***
	library	181(33.5%)	60(11.3%)	79.06***	23(14.6%)	37(9.8%)	2.56
	recreation center	166(30.7%)	30(5.6%)	112.07***	6(3.8%)	24(6.4%)	1.37
	welfare center	98(18.1%)	205(38.5%)	48.59***	135(86.0%)	70(18.6%)	212.39***
	theatre	79(14.6%)	4(.8%)	77.17***	1(.6%)	3(0.8%)	.04
	play ground	460(85.2%)	354(66.4%)	57.04***	139(88.5%)	215(57.2%)	48.82***
	gym.	34(6.3%)	1(.2%)	30.99***	1(.6%)	0(0.0%)	2.40
Administration office	village office	369(68.3%)	288(54.0%)	26.57***	102(65.0%)	186(49.5%)	10.71**
	school	410(75.9%)	336(63.0%)	21.47***	107(68.2%)	229(60.9%)	2.50
	district office	166(30.7%)	11(2.1%)	170.48***	2(1.3%)	9(2.4%)	.69
	city hall	27(5.0%)	10(1.9%)	8.93**	0(0.0%)	10(2.7%)	4.26*
Transportation system	subway	266(49.3%)	151(28.3%)	54.19***	63(40.1%)	88(23.4%)	15.26***
	bus (more than 3 routes)	415(76.9%)	334(62.7%)	32.49***	114(72.6%)	220(58.5%)	9.41**
	seat- based bus	225(41.7%)	73(13.7%)	109.67***	49(31.2%)	24(6.4%)	57.76***
	only town-block bus available	67(12.4%)	92(17.3%)	8.80**	23(14.6%)	69(18.4%)	1.06
	walk	71(13.1%)	129(24.2%)	19.68***	36(22.9%)	93(24.7%)	.20

** : $p < .01$ *** : $p < .001$

이고 있어 빈곤층의 주변 환경이 교통이 불편하고 행정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 나아가 문화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신, 구도시 별로 살펴보면 신도시에 위치한 빈곤층의 전반적인 지역 환경이 구도시의 지역 환경보다 나왔다. 생활편의시설에서는 병원과 은행, 대형할인점이 주변에 있는지 유무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문화시설에서는 복지회관과 공원, 그리고 도보로 이용 가능한 놀이터 유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행정시설에 있어 학교시설은 지역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역 간의 차이는 교통수단에서도 나타나 신도시 거주민이 시내버스, 전철, 좌석버스를 구도시 거주민보다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환경이 육아에 적절한 환경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일반계층 가정의 부모들이 빈곤가정의 부모들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Table 6). 지역별로 보면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가정이 구시가지의 빈곤가정보다 교육환경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Educational environment by SES and by settlement character

	SES		Settlement character of low-income group	
	middle-income (N=523)	low-income (N=492)	social housing (N=139)	spontaneous settlement (N=353)
Satisfactory	380(72.7%)	238(48.4%)	85(61.2%)	153(43.3%)
Unsatisfactory	143(27.3%)	254(51.6%)	54(38.8%)	200(56.7%)
	$\chi^2=64.53, ***p<.001$		$\chi^2=12.67, ***p<.001$	

주변 환경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 모두 교육과 자연환경을 꼽고 있으나 빈곤가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이나 가까운 곳에 사는 친인척, 그리고 친밀감 높은 주변이웃이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Table 7).

주변 환경 인식을 빈곤층의 거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신도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자연환경, 그리고 교육환경이 지역 환경의 교육적 측면에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Table 7). 반면 구도시에서는 가까운 곳에 사는 친인척과 주변이웃을 들고 있어 개인적인 인력망이 신도시보다 훨씬 강하고 이것이 이곳에 있는 빈곤층의 아동교육에 상당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양육에 있어 구도시 빈곤층은 친인척과 주변이웃을 중심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 비해 신도

시의 빈곤층은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인력망의 의존율이 높고, 이 사실에 비추어 이웃과 친척의 유대관계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신도시에서 소멸되고 있을 우려가 높다. 이 외에도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주변 물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1명에 불과하여 그들 주변 물가가 일반계층 위주로 책정되어 생활하는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현재 거주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반가정 부모들은 교육환경 불량을 1위로 생각하였다(Table 8). 반면 빈곤층은 문화체육시설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욕구나 지역의 안전을 문제삼는 경우가 일반에 비해 높게 나왔다. 거주지역 주변에 상가 및 유흥가가 인접해 있는 경우가 빈곤가정에서 많았는데도 불구하고(일반가정 5%, 빈곤가

Table 7. Preference of educational environment by SES and by settlement character(1st. rank answer only)

	SES		Settlement character of low-income group	
	middle-income (N=379)	low-income (N=233)	social housing (N=84)	spontaneous settlement (N=149)
Close neighborhood	26(6.9%)	29(12.4%)	1(1.2%)	28(18.8%)
Edu. environ.	120(31.7%)	43(18.5%)	17(20.2%)	26(17.4%)
Welfare facility	5(1.3%)	41(17.6%)	31(36.9%)	10(6.7%)
Quality health center	2(.5%)	6(2.6%)	0(0.0%)	6(4.0%)
Relatives	21(5.5%)	32(13.7%)	3(3.6%)	29(19.5%)
Reasonable prices	2(.5%)	16(6.9%)	1(1.2%)	15(10.1%)
Quality peer of the children	16(4.2%)	11(4.7%)	2(2.4%)	9(6.0%)
Natural resources	176(46.4%)	51(21.9%)	28(33.3%)	23(15.4%)
Amenities	5(1.3%)	0(0.0%)	0(0.0%)	0(0.0%)
Etc.	6(1.6%)	4(1.7%)	1(1.2%)	3(2.0%)
	$\chi^2=145.64, ***p<.001$		$\chi^2=70.45, ***p<.001$	

Table 8. The most serious neighborhood problem by SES and by settlement character(1st. rank answer only)

	SES		Settlement character of low-income group	
	middle-income (N=142)	low-income (N=243)	social housing (N=53)	spontaneous settlement (N=190)
Convenient facility	8(5.6%)	21(8.6%)	2(3.8%)	19(10.0%)
Amenities	20(14.1%)	61(25.1%)	12(22.6%)	49(25.8%)
Welfare center	0(0.0%)	23(9.5%)	0(0.0%)	23(12.1%)
Lack of natural resources	19(13.4%)	31(12.8%)	1(1.9%)	30(15.8%)
Hazardous neighbors (tarvens, etc.)	13(9.2%)	17(7.0%)	2(3.8%)	15(7.9%)
Poor educational environment	61(43.0%)	19(7.8%)	3(5.7%)	16(8.4%)
Lack of social network	5(3.5%)	20(8.2%)	19(35.8%)	1(0.5%)
Safety problems	3(2.1%)	22(9.1%)	9(17.0%)	13(6.8%)
Lack of health care centers	3(2.1%)	5(2.1%)	1(1.9%)	4(2.1%)
Poor public transportation	5(3.5%)	13(5.3%)	0(0.0%)	13(6.8%)
Etc.	5(3.5%)	11(4.5%)	4(7.5%)	7(3.7%)
	$\chi^2=87.38, ***p<.001$		$\chi^2=100.43, ***p<.001$	

정 28%),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반에 비해 낮게 나왔는데 이는 빈곤층이 상가유흥시설을 이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연유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환경 인식에 대한 부정적 요인을 빈곤층의 거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신도시에 소재한 이들은 문화체육시설의 부족 외에도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었다(Table 8). 반면 구시가지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의 부족, 그리고 공원과 같은 자연환경을 지적하였다. 이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빈곤층이 구시가지의 빈곤층보다 이웃 간의 유대가 떨어지는 반면, 구도시의 빈곤층에게 특히 공원과 같은 녹지가 미

비하고 주변의 향락업소로 인한 위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활편의시설이 여의치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묻는 질문에서 일반계층은 빈곤층보다 훨씬 긍정적이었다(Table 9). 이에 반해 빈곤층은 미래가 지금보다 나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23%를 넘어서고 있어 일반인(6%)보다 훨씬 부정적이었다. 이는 갈수록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거주지별로 분석해보면 신도시 빈곤층에 비해 구시가지에 거주하는 빈곤층이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는 신도시

Table 9. Hope for the future by SES and by settlement character

	SES		Settlement character of low-income group	
	middle-income (N=534)	low-income (N=528)	social housing (N=157)	spontaneous settlement (N=371)
Optimistic	439(82.2%)	234(44.3%)	51(32.5%)	183(49.3%)
Pessimistic	30(5.6%)	122(23.1%)	58(36.9%)	64(17.3%)
Unconcerned	65(12.2%)	172(32.6%)	48(30.6%)	124(33.4%)
	$\chi^2=175.29, ***p<.001$		$\chi^2=29.31, ***p<.001$	

에 소재한 빈곤층이 주변의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부정적인 미래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빈곤층 아동의 주거환경에 있어 일반계층과 빈곤층, 그리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위주의 구도시와 임대아파트 위주의 신도시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

먼저 주택소유현황을 보면 빈곤 가정의 6% 남짓한 가정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절반가량이 월세로 살고 있어 주거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유추되며 이렇게 낮은 주택 소유비율은 신, 구도시 간에도 차이가 없어 두 지역의 빈곤상황이 심각함을 유추할 수 있다. 월세처럼 정기적인 주거비의 지출은 교육비의 지출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Bolger et al. 1995; Evans 2004). 주거형태를 보면 일반가정은 아파트 거주자가 다수를 차지하나 빈곤 가정은 지역이 형성된 시기에 따라 다세대주택과 임대아파트 거주자로 나뉘었다. 또한 구체적인 도시계획 없이 형성된 다세대나 단독 주택 거주자의 주변이 상가, 유흥가와 인접해 있거나 지하, 또는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흔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빈곤층의 방 개수는 3개가 가장 많아 2000년 우리나라 빈곤층의 평균 방 개수인 2.3개를 넘어서고 있으나 빈곤가정의 가족수가 4명이상의 비율이 높아 형제는 물론, 기타 가족과 방을 공유할 확률이 높다. 빈곤층의 협소한 주거공간은 그들의 자녀에게 주의집중장애, 우울증, 학업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이순형 등 1991; Evans 2004). 빈곤층 주택의 문제점으로 소음과 협소한 공간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기존의 빈곤층 주거환경 연구와 일치하였다(김태경·윤지영 2006; 하성규 1990; 홍인옥 2006). 주거문제는 빈곤층이 사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협소한 공간문제

는 임대아파트가 다수인 신도시에서 심각하였는데 이는 정부주도인 공공임대아파트 주택 공급이 확실적인 공간 보급에 그쳐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좁은 공간이 위생과 프라이버시침해, 아동의 정서안정이나 학습 환경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아 결과적으로 아동 양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정희 등 1990). 반면 다세대와 단독주택이 많은 구도시는 채광부족, 급경사, 좁은 골목을 불편해 하였고, (반)지하 거주자가 많아 아동의 위생문제가 우려된다. 또한 주택이 난립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로 확보 문제로 인한 소방 대비의 취약성과 아울러 아동의 교통사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지역 환경

지역사회의 생활편의시설, 문화시설, 행정시설, 교통수단 모두가 일반계층에 비해 빈곤층거주 지역이 열악하였다. 지역환경에서 병원 접근성은 물론, 시장 접근성도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에 영향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Mackerras, 1997; Sooman, Macintyre & Anderson, 1993). 빈곤가정의 거주지 별 지역환경은 전반적으로 신도시 거주 가정의 지역환경이 구도시에 비해 나았으며 특히 복지회관과 공원, 좌석버스 유무가 신도시와 구도시 간에 크게 차이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도시 임대아파트가 주변과 고립되어 생활편의시설이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기존연구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그 이유는 성남지역에 신도시가 형성된지 20여년이 되어가는 정착기를 거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김태경·윤지영 2006; 하성규 1990).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실제로 신도시 거주 빈곤층의 아동 양육에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유추하는데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은행이나 병원, 대형할인점 등은 인접해 있으나, 구도시 빈곤층에 비해 생활물가가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리고 구도시 빈곤층과 달리 미래를 부정적으로 조망하는데서 더욱 더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사회 만족도를 계층별로 보면 일반가정에서 주변이 육아에 적절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신도시 거주 빈곤가정이 구도시 거주가정보다 지역환경이 교육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변환경에 만족하는 이유로서 일반계층과 빈곤층 모두 자연과 교육환경을 꼽아 자연환경이나 교육환경이 살기 좋은 지역환경의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점으로 일반가정에서는 자녀의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은 반면 빈곤 가정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이나 공원과 같은 녹지를 더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자연환경이나 문화시설이 여유있는 중산층의 향유물이 아니라 소득계층에 상관없는 주거환경의 필수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순형 등(1991)은 빈곤층의 문화시설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서 시설이용에 따르는 요금부담을 들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접근성 문제도 이러한 시설이용이 낮은 이유가 됨을 본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지역사회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빈곤가정의 거주지 별로 보면 신, 구도시 모두 문화체육시설과 공원, 녹지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신도시 거주 가정에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부족을 꼽고 있어 이들의 유대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반면 구도시의 빈곤층은 주변이웃과 친인척을 통한 사회인적망(social network)이 그들의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결론

본 연구는 0-12세 아동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을 계층별로, 그리고 빈곤가정의 거주지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빈곤가정은 주거비용의 지출에서부터 압박받고 있고 협소한 공간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생활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행정, 교통수단이 열악한 곳에 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유의하여 주목할 것으로서 신, 구도시의 빈곤층간에 대비되어 나타나는 사회인적망의 변화이다. 미국에서 행해진 빈곤층에 관한 연구에서 이들에게 부박한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사회적 지지망이며 힘든 일을 서로 돕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나 의논상대가 없는 것이 이들의 환경을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Evans 2004). 우리나라

의 경우 구도시의 빈곤층에서는 이웃과 친인척을 위주로 한 사회망으로부터 받는 교육적인 도움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간관계가 주거공간의 이용에서처럼 자녀양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신도시 빈곤층에게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지지망이 급속히 사라지고, 이웃과 친인척이 주는 지지를 지역사회 복지관이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사회 문제점으로 이웃과의 연대부족을 들고 있는데서 이러한 기구의 대체적 역할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의 소원한 이웃관계는 그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한 연수에서 구도시와 차이나지 않으므로 빈번한 이사로 인한 관계형성의 어려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신도시 임대주택 빈곤층은 생활편의시설이나 교육, 문화적인 환경이 구도시 빈곤층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의 희망이 이들보다 어두운 것으로 나타나 주변의 아파트단지에서 생활하는 일반계층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신도시 빈곤 가정 부모는 또 다른 환경, 자녀양육을 서로 도와줄 이웃이나 친척이 없고 주변의 물가가 비싸 생활비 부담이 크며, 가까이서 보는 중산층 생활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심리 공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원과 같은 자연환경, 그리고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이 빈곤층의 자녀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빈곤층의 주거환경이 임대아파트 위주인 신도시와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많은 구도시간에 차이 나며 이러한 차이점에 입각하여 정책입안 역시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해 빈곤층이 모두 혜택을 입을 수 있겠으나 신도시에 들어서는 복지관에서는 부모역할 상담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과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절실하게 보인다. 또한 구도시에 소재한 빈곤가정의 아동복지를 위해서는 주변 이웃의 정비, 좁은 골목의 정비에서부터 인근의 유흥가나 상가로부터 오는 위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도서관이나 공원과 같은 문화시설이 접근 가능한

곳에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과 빈곤 가정, 그리고 자생적인 성격이 강한 구도시 빈곤가정과 영구임대아파트 위주인 신도시 빈곤가정의 주거환경 차이에 주목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환경이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재래시장이 주변 빈곤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 상태에 영향 미치는 정도라던가 친인척이나 이웃과 형성하는 인적망의 변화가 그들의 가족관계나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구인회(2003) 경제위기와 청소년 발달: 경제적 상실과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산재단 연구총서. 서울: 집문당
- 구인회·박현선·정의중(2006)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10(3), 269-295.
- 김광혁(2006) 빈곤이 아동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제 20집. 109-125.
- 김지은(2005) 미국 초기 헤드스타트의 문헌고찰을 통한 한국의 영아보육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12), 97-111.
- 김태경·윤지영(2006, 11) 주택공급정책에 있어 사회적 통합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류현규·최현수(2003)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과 변화 경향: 1982-2002년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지 16, 137-165.
- 이기숙·정미라·김현정(2006) 한국·중국·일본 유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5), 81-98.
- 이병대·동재욱(2005) 도시 저소득층 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산업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0(2), 91-103.
- 이봉주·양수·김명순(2004, 10) We Start 경기도마을 복지, 교육, 보건 욕구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경기도청.
- 이순형·신양재·김영주(1991) 빈곤가정 아동의 환경지각 연구. 아동학회지 12(1), 113-128.
- 이승현·조용수(1993)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의 건축적 특성과 주거 변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3(2), 239-243.
- 이정희·김성균·최목화(1990) 대전지역 저소득층 주거환경의 질적인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2), 57-72.
- 정익중(2004) 미국의 복지개혁이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학회지 18, 181-215.
- 하성규(1990) 자생적 정착촌과 도시재개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 163-174.
- 허진욱·정진원·민선주·조병수(1997)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7(1), 35-41.
- 홍인옥(2006) 빈곤 아동. 청소년의 주거실태 조사결과 및 주거빈곤 유형구분. 도시와 빈곤. 79, 55-83.
- Bolger KE, Patterson CJ, Thompson WW, Kupersmidt, JB(1995)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children experiencing persistent and intermittent family economic hardship. Child Development 66, 1107-1129.
- Bronfenbrenner U.(1979)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oks-Gunn J, Klebanov PK., Liaw F(1995) The learning, physical, and emotional, environment of the home in the context of poverty: The infant health and develop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1/2), 251-276.
- Cunha, Heckman, Lochner, Masterov(2005) Interpreting the evidence of life cycle skill formation. NBER Working Paper No. 11331.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재인용, OECD(2006) Starting Strong II, p. 38)
- Davie R, Buttlar N, Goldstein H(1972) From birth to seven, London: Conger.
- Eamon M.(2001)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 ecological systems approach Social work, 46(3), 256-266
- Evans, GW(2004) The environment of childhood poverty. American Psychologist 59(2), 77-92.
- Mackerras D(1997) Disadvantaged and the cost of foo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21, 218.
- Schweinhart L.(2004). Lifetime Effects: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40. Ypsilanti, MI: High/Scope Educational Research Foundation
- Sooman A, Macintyre S, Anderson A(1993) Scotland's health: a more difficult challenge for some? the price and availability of healthy foods in socially contrasting localities in the west of Scotland. Health Bulletin 51, 276-284.